

9/25/16

설교 제목: 음행 죄에 대한 교회 내에서의 치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5:1-13, 6:9-20

- (고전 5: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 (고전 5: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 (고전 5: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 (고전 5: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 (고전 5: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 (고전 5: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 (고전 5: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 (고전 5:9)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 (고전 5: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절관주** 요 17:15
- (고전 5: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절관주** 시 69:12
- (고전 5: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절관주** 막 4:11

- (고전 5: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 (고전 6:10)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 (고전 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 (고전 6: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절관주** 고전 10:23
- (고전 6:13)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절관주** 살전 4:3
- (고전 6: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 (고전 6: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 (고전 6: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 (고전 6: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 (고전 6: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절관주** 롬 1:24, 살전 4:4
- (고전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 (고전 6: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동서고금을 통털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돈, 여자, 권력입니다.
-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실했던 목사님들까지도 이것들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예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 왔고 또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 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아볼로에게 맡겨 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 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글로에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던 중 고린도 교회로부터 교회 문제에 대해 바울의 판단을 구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피력해 답장을 보냅니다.

그중에서 본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교인들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 지역의 수도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번창했고 향락과 부패가 만연했으며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각 나라 사람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도시가 온통 가득 차 있어 영적으로도 난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역 가장 높은 곳에는 여신 아프로디테(사랑의 여신)를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지어 놓고 1 천명 정도 되는 여사제(창녀)들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신전에 제물을 가지고 온 남자들과 온갖 음란한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아비의 아내, 즉 아비의 첩이나 계모를 취하는 이도 있었고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같은 음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나아가 교회가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해 피력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음행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일깨웁니다,

1. 음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전 6:10)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란이라는 단어 '포르네이아'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 간음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탐색 남색 등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porn 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탐색은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남색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만약 이런 죄를 지었다면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영육 간에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2. 창기와 합하는 것은 저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6: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전 6: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서는 성 관계를 통해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그러므로 창기와 합하는 것은 곧 저와 한 몸이 되는 것, 즉 창기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핑계되며 음행한 일을 저지르거나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3. 음행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고전 6: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다른 죄들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자신의 몸 밖에서 이루어져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음행은 자신의 몸을 더럽혀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고전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전 6: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면 죽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며 주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 몸을 항상 거룩하게 보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성경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죄인 음행에 대해 교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죄를 중히 여겨 처벌해야 합니다.

(고전 5: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전 5: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경건(godliness)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경건의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용납지 못할 죄를 짓고도 이를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음행(특히 목사들이 교인을 상대로)을 하고 교회를 기업 물려 주듯이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하고 교회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횡령해 쓰고 교회 헌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감투쓰기에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교단에서는 이런 범죄하는 자들을 보고서도 성경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서로 눈치 보면서 덮어 주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을 사랑과 용서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비난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명합니다.

(고전 5:9)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전 5: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범죄한 자는 사단에게 내어 주어서라도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고전 5:5)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범죄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이 한 짓이 죄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자신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기를 꺼려하고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지 못한 비겁한 행동입니다.

바른 치리를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3. 교회가 죄를 엄중히 치리해 죄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 퍼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처음 죄가 드러났을 때 이를 엄히 다루지 않으면 결국 이 죄로 인해 교회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고전 5: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 고린도 교회내에 반응에 대해
신경을 쓰며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관한 고무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후 7: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고후 7: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후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후 7: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근심이 있었으나 결국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치리함으로써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죄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했을 때에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치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에 대해 사랑과 용서와 덮어주기라는 명분으로 치리없이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는 옳지 않고 성경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단언하건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스스로를 정결케 지키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